

“존중의 표현 일상화되도록 노력해야”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혐오표현 대응 강조

전북도교육청은 ‘혐오표현’을 ‘존중의 표현’으로 바뀌어나가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18일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혐오표현의 뿌리 깊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뀌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혐오표현이 광장이 많이 확산돼 있고, 더 큰 문제는 어린 나이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농담처럼 하는 말이 혐오표현이 되고, 그게 전이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아이들 입에서 혐오표현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일상화·체질화 되도록 교육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인권위와 서울·광주·경기·전북교육청이 혐오표현 공동대응 선언식에서 학생들이 무심코 쓰는 표현이 혐오표현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꼽은 혐오표현에는 ‘공부도 못하면서, 남자에게 왜 이렇게 수다를 떨어? 내가 여자냐?’, ‘여자가 무슨 축구

를 하냐?’ 등과 같은 말들이 있었다.

김 교육감은 “가장 좋은 교육은 보고 배우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면서 “혐오표현이 교실에서, 아이들의 삶에서 사라지고 존중표현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북·서울·경기·광주교육감과 함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학생과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정보 한눈에!

도교육청서 기능인재 한마당 개최

2019년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전북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다.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은 직업계고의 학교교육과정 및 특색사업을 홍보하고,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 직업계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5회째다.

주요 행사는 ▲직업계고 교육활동체험부스 ▲재능마당 ▲직업계고 진로상담 등이 진행된다.

우선 직업계고 교육활동체험 부스에는 도내 33개 직업계고 교실에서 참여한다.

직업교육활동 홍보와 전공별 직업체험, 학교기업·창업동아리 제품 판매 및 체험 중심으로 승마, 공예, 농업, 식품·조리, 상업, 목공, 드론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자동차, 기계·특수용접 등 공업계열 학생들은 프로젝트로 진행한 수업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설명하며, 식품·조리 분야의 학생들은 직접 만든 디저트 요리를 선보이고 시식행사도 연다.

이밖에도 가죽공예·네일아트 체험, 목공예품 전시 및 판매, 드론조종체험 등도 진행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자랑하는 재능마당에는 관악, 사물놀이, 댄스사제합주, 우쿠렐레, 난타, 힙합, 버스킹, 비보이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직업체험 활동에서는 학교별 담당 교사가 직접 참여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전문계열) 진학 상담을 진행하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이번 한마당에는 도내 19개 중학교에서 1,5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직업계고 교육활동체험, 진로상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이 지난 16일 ‘창의문제해결이론(TRIZ)을 적용한 2019 전국 대학생 경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전주대 LINC+사업단, TRIZ 전국경진대회 성료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 교수)은 지난 16일 ‘창의문제해결이론(TRIZ)을 적용한 2019 전국 대학생 경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LINC+사업단은 지난 2015년부터 창의아이디어 문제해결능력의 배양과 창의

인재양성의 확산을 위해 본 대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총 35과제(팀)이 접수 최종 본선발표에서는 용접로봇의 원동연결 작업 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제시한 부경대 그저팀(발표자 이승

현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대 LINC+사업단 주승 단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확산을 위해 매년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LINC+사업단 2019년도 평가에서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창의인재양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창업 아이템 콘테스트 큰 호응

전북대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창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검증에 위해 CB&NEW 아이템 콘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각 학과별로 학생들의 아이디어 계획서를 평가해 15팀을 선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캠프 안에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는 협업 형태로 진행됐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우수한 창업·기술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창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 멘토링이 이뤄졌으며,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아이디어 경쟁력을 겨뤘다. 대상에는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을 구현한 Green E팀에게 돌아갔고, 최우수상은 안드로스스테노를 활용한 애견산책용품을 제안한 럭키팀 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승엽 학생(전자공학부)은 “일상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제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멘토링과

교육을 통해 발전시켜 창업 아이템으로서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어 좋았다”며, “서로 다른 분야의 열정적인 학생들과 융합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단이 다각화된 창업교육과 지원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우수한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불심양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을 넘어 세계 속으로 ‘우뚝’

전북대, 중앙일보 평가 ‘거점국립대 2위’ 쾌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11월 16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19 대학평가에서 거점국립대 2위(국립대학법인 제외)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내 순위도 5계단 뛰었다. 전북대는 지난해 25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분야별로 고른 성적을 획득해 50개 대학 중 20위를 차지했다.

반면 다른 주요 거점 국립대들은 순위가 대부분 하락했다.

전북대는 특히 교육 여건과 교수 연구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 여건 부문에서 교수 확보율 1위, 등록금 대비 교육비 투자 4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17위), 기숙사 수용률(11위),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16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Top 10(9위) 안에 들었다.

교수 연구 부문은 14위였다. 교수당 자체 연구비가 5위였으며, 계열별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횟수(11위), 인문사회 저역서 발간(11위), 인문사회 국내논문 게재(14위)가 10위권 초반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평판도 부문에서도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17위, 국가·지역 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18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여건(12개 지표, 100점 만점), 교수연구(10개 지표, 100점 만점), 학생 교육 및 성과(6개 지표, 70점 만점), 평판도(5개 지표, 30점 만점) 등 4개 분야 33개 평가지표(총 300점 만점)로 50개 대학을 평가했다.

전북대는 이러한 성과를 거둔 이유에 대해 등록금은 사립대 절반

수준인데 비해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매년 공개되는 전북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국립대 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 중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에는 학생 1명에 평균 1,737만 원을 투자했다. 전국 183개 국·공·사립대 평균은 1,574만 원이었다.

전북대 연간 등록금이 4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북대생들은 등록금 대비 4배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혁신 교육 플랫폼 구축을 기치로 내걸고 교양교육 내실화와 전공교육에 창의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전북대는 우수인재 유치에서부터 잘 가르치는 혁신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이 학생의 입학부터 학부과정, 대학원 진학, 취업까지 총괄해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해주는 IS(Honor Stud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잠재력이 큰 동남아 대학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학 교육연합체(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를 구축하며 교육의 지평도 세계 속으로 넓히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대학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플랫폼 구축사업과 교육혁신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대학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부터 ‘화목화목 강독회’ 운영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설명하는 ‘화목화목 강독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늘과 21일, 22일 3일, 5일, 10일, 12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강독회에는 도내 학교 및 기관에서 신청한 교직원 370여 명이 참여한다.

당초 도교육청은 매회 50명씩 4차례에 걸쳐 강연회를 운영할 예정했으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2회를 추가했다. 이는 학교자치 조례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은성 기자

강독회는 학교자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읽으며 그 뜻을 풀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 과정과 실행 의의, 2020년 활성화 계획 등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 간 상호 토론을 통해 학교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1일 공포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